

여성문제를 넘어 사회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계속해서 학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火) 4차 공판에서는 우조교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결심공판은 4월18일(月)로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서울대 학우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고, 특히 여학생모임이나 여성문제연구동아리들은 공판진행과정을 꾸준히 주시했다.

우조교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학, 여성운동 등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학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사는 관악만들기'라는 이름으로 4월 4일(月)부터

13일(火)까지 기획강연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 학과에서도 여성문제가 한 번씩은 다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수준 또한 異性문제 차원이 아니라 계급문제, 사회구조적 억압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 학내 여성운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 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9년에 건설됐던 총여학생회가 91년에 사라지면서 학내 여러 여성운동조직들도 총여학생회와 운명을 같이 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은 '한울타리', '여명', '어우르기'등인데, 최근, 친목단체의 수준에 머물

러 있던 법대 여학생모임이 '원을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이들 운동조직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인문대 동아리인 '여명'만 해도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2~3명 정도에 불과하고, '원을 지우는 사람들' 역시 여성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 내적 결집성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차원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여성문제에 대해 본교 여학생들 스스로가 별다른 '운동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여명'에서 활동중인 김민경 양(신문·3)은 "사회적 관심도의 향상에 비해 진정한 의미의 여성학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재미니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쯤은 다 안다'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신교수 성희롱사건 대책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는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신영욱군(사법·4)은 "여학생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본교 여학생들은 "사회적인 남녀차별의 벽은 자신의 (개인적) 능력으로 능히 깰 수 있고, 여성문제의

직접적 관련자는 여성노동자나 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남녀차별적인 제도에 대한 투쟁' 등 여성운동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운동조직들의 1학기 계획은 커리큘럼 준비나 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정비에 맞춰져 있고, 몇몇 조직이 공개토론회등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 동아리인 '한울타리' 회장 김영오군(기계설계·2)은 학내 여성운동이 이렇게 이론적 계몽의 경향을 띠는 것을 비판하면서 "남성에 대한 성토대회 수준의 여성운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의식화작업이 성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조적·계급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군은 "여성운동조직은 여성문제에 대해서만 발언한다는 선입견부터 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대 '원을 지우는 사람들'의 경우 주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모임의 리더격인 곽서희양(사법·3)은 "여성문제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가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됐을 뿐"이라며, 곽양은 "우리 모임은, 성과중심, 권위주의 등의 특징

을 가지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조직체에 대한 하나의 대항"이라는 말로 '원을 지우는 사람들'의 건설취지를 설명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울대 여학생들의 계급적 관점에서의 여성의식은 소극적,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더이상 '여성'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해선 비단 여성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장'으로 나와야만 할 것이다.

〈張富초기자〉